## 발간사

파주는 율곡의 본향이며 기호 유학의 본산입니다. 율곡 선생은 16세기 조선의 사대 학자이며 정치가셨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생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율곡 선생의 말씀이 울림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 군사력 ·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각종 국제 대회에서 한국인이 큰 상을 탈 때 스스로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국내 문제와 갈등 현장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자부심에 맞게 어울리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까닭은 현대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모습에서 문화민족다운 점을 찾기 힘든 점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문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내 삶 속에 내면화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에 제대로 살리지 못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일차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 거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여 생활에 적용하고, 때로는 외국인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서는 방대한 문화유산 가운데서 율곡 선생의 문집에 실려있는 글을 뽑아 먼저 우리말로 옮기고, 확장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누구나 갖고 다니기 편한 책자로,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문헌 자체도 방대할뿐더러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본서는 우선 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초학자가 배움에 앞서 뜻을 세운다는 '입지'(立志)를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뜻을 세운다는 말은 오늘날 개인이나 조직의 리더가 삶이나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무슨 뜻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자세로 그것을 이루는지 이 작은 책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학문과 사상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께서는 권말에 부록으로 첨부한 "'입지'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책상 위나 사무실, 승용차 안이나 사업장에 늘 가까이 두고 틈틈이 읽어본다면, 마음의 양식과 거울이 되어 훨씬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꼭 좋은 뜻을 세우고 실천하시기를 빕니다.

2022. 9.

파주문화원 원장 우관제